



北 최수현 외무부 부상

“금융제재 해제없는 복귀 불가” “6주 후쯤 마지막 시도 논의”

북핵 6자회담 11월이 ‘분수령’

오는 11월초가 북핵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수현 외무부 부상이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 복귀 불가를 거듭 밝혔음에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달 중이나 늦어도 6주 후쯤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 “미국이 오히려 6자 회담 의지 없어”=북한의 최 외무부상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 직후 대화 상대인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확장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으며 한반도

핵 문제 역시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제재는 계속할 것”=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내달 중이나 늦어도 6주 후쯤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년째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론, “현 상황은 정말로 수용할

수 없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6자회담 재개 노력의 시한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늦어도 11월초까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미국은 6자회담에의 미련을 버리고 본격적인 추가 제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라이스는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지난 14일 노무



美 라이스 국무장관

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라이스는 북한 대응 문제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난 주 유엔 총회 기간 동맹국들에 대북 식량 및 비료 제공증단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광주은행 “이대호가 좋아”



장필수
경제부 차장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금융 공기업 감사결과가 지역민들의 감정을 들쭉시키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등 국민의 혈세로 돈잔치를 벌이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담아 허탈한 심정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을 새삼 확인

했다는 것이다. 향토은행을 자처하는 광주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은행은 업무추진비 4억3천여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비하면 그나마 덜하지만 광주은행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지난 38년동안 광주은행을 사랑해온 이들에게 비리의 대소(大小)는 ‘오십보 백보’일뿐 넘지말아야 할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68년 지역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광주은행은 부실경영으로 존폐위기에 몰렸다가 2000년 공적자금 4천418억원이 투입되고 우리금융지주그룹에 편입되면서 기사화했다. 이후 부실은행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올 상반기에만 552억원의 당기순이익과 총대출 8조원, 총수신 10조원을 달성하는 등 ‘작지만 강한은행’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영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신뢰 효과’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은행 직원들은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돼 규제와 제재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금융’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영업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소(強小)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예금보험공사)가 99.9%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는 우산 아래 누리는 혜택(?)은 다양하다.

공기업이전 삭감됐던 임금은 이후 완전히 회복됐다. 대학재원 학자금과 인사사백 무상지원 등 다양한 복지후생제도도 다시 생겼다. 이 때문에 지역 금융계에서는 광주은행 직원들을 ‘준(準) 공무원’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게 이같은 복지는 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은행 인수추진을 발표했고 최근에도 모기업이 인수의사를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때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각할 이유도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매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광주은행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체 민영기업으로 되돌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준 공무원’으로 남고 싶어하는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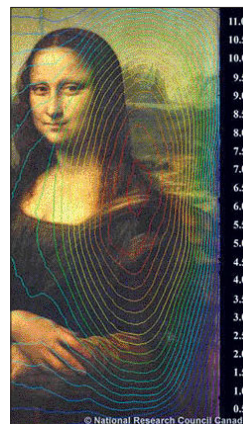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이 라미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의 사원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명화 ‘모나리자’ 모델 아들 낳은 직후 ‘포즈’

캐나다 과학자 정밀 분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의 주인공 모델은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직후였던 것으로 정밀 분석 결과 밝혀졌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산하 연구보존센터의 전문가 브루노 모방은 캐나다 과학자들이 실시한 정밀 분석(사진)에서 모나리자가 웃어 투명한 망사 천을 걸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는 모나리자가 당시 출산 직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방은 “이런 망사천은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임신부나 막 출산한 부인이 두르던 전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모나리자의 화면이 어두운 것으로 간주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견으로 이 그림이 “모나리자의 둘째 아들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다빈치가 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본다면 이 그림의 제작 연대는 1503년 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나리자의 모델이 된 주인공은 당시 피렌체의 거상이었던 프란체스코 데 조콘도 부인으로 다섯 아이를 두고있던 리자 게라르디니로 알려지고 있다.

/*오터로이터=연합뉴스

“후한은 고구려...중국역사에 없다”

민족사학자 이증재씨 주장 “고구려 900년간 지속된 천자의 대국”

중국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 건국된 후한(後漢)이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인 고구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사학자인 이증재 상고사학회 회장은 27일 ‘국회 21세기 동북아연구회(회장 권철현)’가 중국 동북공정(東北工程)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후한은 사실상 고구려로, 고구려는 근 900년간 지속된 천자(天子)의 대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한(漢)을 멸망시키고 ‘신(新 AD 8~23)’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왕망(王莽)이 사실은 ‘구려(句麗 고구려의 전신)’의 6대왕 태조대왕의 동생인 8대왕 신대왕(新大王)이며, 신

대왕은 제위 직후 위상이 크게 높아진 나라의 이름을 현재의 고구려(高句麗)로 바꿨다고 한다.

그는 ‘삼국사기’와 ‘자치통감’ 등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국인 사서나 연표에서 왕망이 고구려 왕이라는 것을 감추고, 신을 건국했다고 기록한 것은 명백한 역사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국지 고구려전’과 ‘후한서 동옥저전’ 등을 인용, “이후 고구려가 19대 광개토왕에서 20대 장수왕에 이르는 전성기때 현 중국 대륙 전체는 물론 외몽고 중부 이상과 만주 지방 전체, 한반도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아베정권’ 교육·납치·개헌 3대과제 주력

日, 교육재생회의’ 10월 발족

일본 ‘아베 정권’이 교육·납치·헌법개정 등 3대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타니(山谷) 에리코 총리 교육재생담당 보좌관은 26일 임명 직후 회견에서 총리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를 10월 초 발족하고 연내 ‘교육개혁 중간보고’를 발표한 뒤 내년 3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생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 문부와 학사 등 3각료와 민간전문가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내각관방에 설치, 교육재생담당 보좌관이 사무장장을 맡게 된다.

학력 향상과 애국심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은 개헌과 함께 아베 정권이 내건 최대 공약이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집단적자위권에 관한 정부해석 변경 여부에 “일미 동맹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를 확실히 진행,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추진할지에는 “정치 일정에 올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장관도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정부의 해석변경 가능성을 질문받고 “지금은 (금지한) 과거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해석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귀뚜라미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주부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귀뚜라미보일러 A/S센터 [1588-9000]에서 미리 점검 받아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 귀뚜라미 보일러 A/S전문성을 자랑한 번호가 있습니다. ● 제품구입 및 A/S 문의는 1588-9000으로 해주세요.

이름서 사형사(사)내(사)를 귀뚜라미 보일러(사)는 이(사)로(사)가(사)는 귀뚜라미(사)방(사)구(사)로(사)는(사)기

DSLR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모놀리식 디자인, 필립 칸도프의 전통적 가치의 새로운 소리입니다. 더욱 강력한 촬영기술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신제품입니다.

α

제품구입 및 문의: 02-522-3000 (노니 광주점) 02-522-3000 (노니 광주점) 02-522-3000 (노니 광주점)